

'아시아선수권 2위' 남자 육상 400m 계주 파리 향해 질주

6월 30일까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38초 30' 기록 부수기 목표
6월 1~2일 대만오픈·14일 태국 오픈서 좋은 성적 기록해야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의 파리행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시청 육상팀 고승환·김국영·이재성과 이시몬(안양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지난 21일 태국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계주선수권대회'에서 39초93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1위는 39초71의 중국, 3위는 40초14를 기록한 홍콩이다. 이날 경기장에 내린 폭우로 전반적인 기록이 저조했다.

이번 대회 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대표팀에겐 달성할 목표가 남았다. 남아있는 두 장의 파리올림픽 티켓을 위한 '38초30 기록 부수기'가 그 목표다.

파리올림픽 육상 남자 계주 400m에 출전하는 국가는 총 16개 팀으로 현재까지 14개 팀이 확정됐다.

14개 팀은 지난 5-6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24 세계계주선수권대회'를 통해 출전권을 얻었다.

당시 한국 대표팀도 대회에 나섰지만 아쉽게 파리행 티켓을 놓쳤다.

한국은 예선 1조에서 39초25로 8개 팀 중 5위를 기록했고 패자부활전 2조에서 39초16로 4위에 머물며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예선 1-4조에서 각 조 1-2위에 오른 8개 팀(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영국,

자메이카)은 결선에 진출하며 파리 올림픽 진출을 확정했다.

패자부활전 1-3조에서 상위 1-2위에 오른 총 6개 팀(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독일, 라이베리아)도 파리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제 남은 출전권은 단 두 장이다. 이 출전권은 2022년 12월 31일~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좋은 기록을 낸 두 팀에게 주어진다.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서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한 국가 중 기록 순위 1·2위는 38초19의 브라질, 그리고 38초30의 트리니다드 토바고다.

한국의 기록은 지난해 10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결선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세운 한국 타이기록 38초74로 현재 파리 올림픽 랭킹 전체 24위,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 중엔 10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 6월 30일 안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록 38초30을 뛰어넘어야만 파리 올림픽 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앞둔 대회는 6월 1-2일 열리는 대만 오픈과 6월 14일 열리는 태국 오픈이다.

한편, 한국 육상이 계주 종목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건 개최국 자격으로 나선 1988년 서울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아시아리레이 2위를 기록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동메달을 획득한 김국영(왼쪽부터), 이정태, 고승환, 이재성. /연합뉴스



2024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전남도체육회 선수단이 20일 울진 왕피천공원에서 치러진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영·호남 어르신들 화합의 장...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성료

전남도체육회 82명 참여

전남도체육회가 2024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 영·호남 화합과 우의를 견고히 다졌다. 울진 실내테니스장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82명의 전남도 체육회 선수단이 참여했다.

경북도 22개 시군 선수단까지 3800여명은 게이

트볼·그라운드골프·배드민턴·소프트테니스·탁구·파크골프 등 6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번 교류행사는 지난 17일 폐막한 제19회 전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에 경북 선수단이 참가해 호흡을 맞췄던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남도 선수단은 20일 열린 울진 왕피천공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종목별 시범 경기 및 문

화합방에 나섰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경북과의 진한 형제의 우정을 이어온 지도 벌써 10년"이라며 "생활체육 우수교류가 확대돼 더 많은 체육인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북의 생활체육 우호교류는 지난 2015년 구미에서 시작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소년체전에 스포츠 전문인력 지원

광주시교육청과 영상분석·컨디셔닝 지원팀 등 19명 파견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 제53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스포츠과학 현장밀착 지원에 나선다.

'2024 학생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고도화'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원은 교육청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연구원은 '현장지원 강화'와 '스포츠 유전자

(DNA)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기력을 향상 시킨다는 목표다.

현장지원의 일환으로 연구원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 기간 광주스포츠과학센터의 박사급 연구위원과 컨디셔닝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여기에 관내 대학 스포츠 지도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영상분석팀, 컨디셔닝 지원팀까지 총 19명의 역대 최대 규

모의 현장지원팀을 파견한다. 이들은 소년체전에서 총 19종목 260명 이상의 선수들에게 '부상 예방 및 회복 컨디셔닝', '영양관련 현장지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지원' 및 '영상분석을 통한 경기력 분석' 등을 지원한다.

시체육회 전갑수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이정선 교육감님의 관심 속에 시교육청 예산을 확보해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정책들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상무중 태권도부가 '제26회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남녀중고교 태권도 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치며 남중부 종합 2위에 올랐다. <상무중 태권도부 제공>

광주 태권 꿈나무들, 5·18 대회서 금빛 발차기

상무중 이창민·최진영 신예진 금
광주체고 이재희 금...감투상 수상

광주 태권도 꿈나무들이 '제26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남녀중고교 태권도 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쳤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간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2346명의 전국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먼저 중등부에서 상무중 이창민이 남중부 밴텀급(-49kg) 1위, 최진영이 남중 라이트급(-57kg) 1위, 신예진이 여중 L-미들급(-62kg)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의 활약으로 상무중은 남중부 종합 2위에 올랐다.

상무중 태권도부 박성민 지도자는 "소년체전을 앞두고 최종 점검이라 생각하고 준비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게 애쓰시

는 김기부 부장님, 태권도부에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은아 교장선생님과 함께 다가오는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금빛 발차기로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전했다.

문성중 김근우는 남중부 미들급(-73kg)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중 박수민과 백승연은 여중부에서 각각 라이트급(-52kg) 2위, L-헤비급(-70kg) 3위를 기록했다.

고등부 선수들의 입상도 이어졌다. 광주체고 이재희가 남고부 헤비급(+84kg) 1위에 올랐다. 박호연과 최진우는 각각 남고부 라이트급(-68kg)과 미들급(-80kg) 동메달을 뒀다.

광주체고는 종합점수로 남고부 4위에 올라 감투상을 수상했다.

문성고 홍승연과 이지후는 각각 남고부 플라이급(-56kg)과 헤비급(+84kg)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